만봉스님은?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평생 불보살세계 장엄



92세의 나이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만봉스님은 190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8살 되던 해 당시 유명한 금어(金魚)였던 봉원사 예운스님의 문하에 들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저 불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나고 좋았다"고 회상하는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실력을 연마한 끝에 18살에 금어의 경지에 이르렀다. 금어가 되면서 봉원사에서 정식으로 출가해 불교전문강원에서 공부하고, 봉원사 범패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하스님께 범패까지 배웠다. 그런 연유로 영산재 보존을 위해 1966년 결성됐던 옥천범음회의 회장직을 맡아 1972년 영산재보존회가 생길때까지 6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스님은 1972년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 지정되었다. 태고종 서울교구 종무원장도 역임했으며, 지난 1998년에는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 제127호 수훈을 받기도 했다.

현재 봉원사에 모셔진 탱화는 모두 스님이 그린 것이다. 전국의 사찰에 모신 불화뿐 아니라 남한산성, 경복궁, 경희루, 남대문, 종로 보신각 등 고건축의 단청도 맡아 했다. 스님이 그동안 배출한 제자는 수백명이 넘지만 86년 전승공예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정자씨를 비롯, 이인섭씨, 미국인 브라이언베리씨 등이 맥을 잇고 있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그 누구보다 진지한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장엄한 불보살의 세계를 화폭에 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의 작품은 내년 쯤에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님은 지난해에 부산에서 열었던 전시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료도 제대로 만들고 해서 내년 쯤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너무도 유연하게 구름을 그려냈다. 채색작업도 마찬가지였다. 빨강색 물감을 묻혀 바탕에 색을 입히는 손놀림이 너무도 부드럽고, 섬세했다. 스님과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돋보기 하나 없이, 바닥에 앉아 탱화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붓을 옮기는 스님은 옆에서 지켜보는 이조차 삼매에 들게 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좀 더 젊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도 많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이란다.

그림에 대한 스님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다. 제자들은 한결 같이 말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나, 깨나 오직 그림만을 생각하고, 그림에만 몰두하는 스님의 모습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입니다. 어쩌다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링겔을 맞아 가며 작업에 임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스님을 보면서 조금 힘들고 아프다고 게으름을 피운 저희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몰래 화실에 가서 그림만 그리다 조용히 집에 가기도 하지요."

제자들이 혹여 바쁘다는 이유로 물감그릇을 쟁반에 받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들고 오거나, 모르고 탱화 위를 밟고 지나가기라도 하는 날엔 호통이 이만 저만이 아닐 정도로 그림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엄한 스님이다. 반면 평소 때는 친할아버지처럼 제자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가끔 유머가득한 이야기로 제자들을 즐겁게 만들기도 한다.

평소보다 늦게 화실에 도착한 제자에게 "어디 좋은데 갔다 이제 왔어" 하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고, 행여 젊은 남자 제자들이 문틈을 엿보고 있으면, "뭐, 거기 누구네 각시 있을까봐 그래?"하기도 하고, 혼기를 놓친 나이 많은 여 제자에게는 "어여, 시집 좀 가, 언제 갈라고 그래?"하시며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스님은 스님의 집이자 화실인 '만봉불화전시관'에서 제자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면서, 불화에 대한 모든 것을 지도 한다. 새로 입문한 제자에게는 초를 그릴 때 불보살의 눈을 특히 신경써서 그리라 일러주시고, 어느 정도 초를 그리는 데 능숙해진 제자에게는 반드시 3천장을 그려야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끊임없는 수련을 강조하신다.

1년 3개월째 시왕초를 그리고 있는 제자 박나연씨는 "제가 시왕초를 6백장 쯤 그렸을 때 스님께 가져갔더니, 3천장은 그려야 그림이 바보같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3천장을 그리라고 당부하셨죠. 90이 넘은 할아버지 스님께서 제 눈을 바라보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스승님을 내 평생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엔 주말만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올해부터 하던 일 다 접고, 스님 밑에서 일심으로 그림 배우기에 전념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현재 스님의 문하에는 입문한 지 두 달도 채 안된 초보 제자에서부터 10년이 넘은 고참 제자까지 20여명의 제자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다.

스님은 또한 불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항상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화를 그리기 전에 항상 몸과 마음,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점검하여 바르게 한 후에야 작업에 임하라는 것이다.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이지만, 불보살을 그리는 불교그림은 마음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님께 옛날 스님이 공부하던 시절과 요즘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여쭈었다.

"요즘 제자들도 하라는 대로 다들 잘 해. 그런데 허다 말고 달아나는 이들이 많아. 한번 시작해서 배우면 몇해고 꾹 참고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나 이만 하면 다 배웠으니 나가서 하겠다 하고 가는 거지. 나가서 뭘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능숙한 경지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돈벌 궁리부터 하는 거지. 이만 하면 내가 돈 벌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 땜에 문제야.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돈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시방 공부하는 이들은 돈이 가깝지, 공부는 뒷줄에 서는 거야. 스승님들 하시던 말씀이 공부하는 사람은 돈 생각하면 공부 못한다 하셨는데 돈은 잊어버리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못했는데 누가 돈을 갖다 주냐 이거야."

스님은 무엇이든지 돈이 척도가 되는 요즘 현실이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불사에 참여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는 스님이기에, 조금 기술을 익혔다고 나가는 제자들은 바라보는 스님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작업에 임하지만, 마치고 나서 돌아보면 항상 좀더 정성스레 제대로 불보살님의 모습을, 그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살다보니, 불화조성이 평생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임을 스님은 깨닫고 제자들이 좀더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단청과 불화를 그리는 동안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항상 부처님이 함께 있다고 믿는다. 아니 스님의 삶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한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하신다고 믿는다. 불화를 조성할 때면 꿈속에서 조차 극락정토의 부처님을 만나고, 지옥문 앞의 지장보살을 만나고, 한량없이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면서, 그림 속에 부처님의 세계를 온전히 옮겨놓으려는 자신의 끝없는 서원을 확인한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서도, 공양하는 중에도, 오로지 그림에 대한 일념으로 하루 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만봉스님.

"오랜 작업 끝에 한껏 위엄을 갖추면서도 자비로움이 가득한 부처님이 웃음을 지으며 회폭 위에 나투실 때, 그 환희로움이란 말로 다 할 수 가 없어. 그 때부터 그 불화는 내 몫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그 부처님을 향해 경배 드리는 불자 저마다의 마음 바탕에 달려 있는 거지."

글=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한치의 떨림 없이 붓을 옮기는 스님 지켜보는 이마저 삼매에 들게한다



◇영산재 시연에 직접 참가한 만봉스님(윗줄 우로부터 여섯번째).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옥천범음회 회장직을 역임하기로 했다. 사진=선암스님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우스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때로는 전광석화처럼 빠를지라도 그 짧은 해후가 빗발처럼 깊이 스미는 인연이 있다. 오래도록 삶의 언저리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인연 말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인연은 애달프고 가슴 아리다.

혜우스님을 만난 것은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선원에서 첫 철을 지낼 때다. 그 때 나는 학인 딱지를 막 떼고 선원 문턱에 들어선 초참(初參) 선객이었으므로 여러 가지로 수선(修禪)에 서툰 점이 많았다. 그 시절에 본 혜우스님은 법랍은 나와 비슷했지만 승행(僧行)은 군대의 선임하사처럼 빈틈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엔 선원의 가풍을 어지간히 부러워했던 것 같다. 안거가 시작되면 구름처럼 산중에 모이는 선객들의 질서도 좋았고 무엇보다 칼날처럼 번득이는 형형한 눈빛이 부러웠다. 호랑이와 한판 승부를 앞둔 포수의 눈빛 같이 살아 있었다. 어찌 보면 한 철 정진은 화두타파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전쟁터와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은 수행자의 기상이 올곧게 서 있다는 것과 통한다.

혜우스님이 바로 그런 수행자였다. 나는 첫눈에 그의 눈빛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깊고 고요한

해인사 선원서 첫 만남
눈웃음 아름다웠던 사람

눈빛을 보면 금새 그 사람에게 동화되어 버리듯나 또한 그의 사상에 쉽게 동화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특히 혜우스님은 눈웃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웃음이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든 배경이 된 것일까. 같은 수행자가 보아도 그는 늘 훤칠하고 기품이 있었다. 결코 요란하지 않는 수행자의 조촐한 멋을 지니고 있었다. 수행자의 멋은 옷의 치장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에서 오는 것임을 그를 통해 비로소 알았다.

하루는 빨래를 말린 후 손질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주머니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주머니가 달려 있었지만 주머니 입을 실로 기워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행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도 안되고 주머니에 물건을 넣는 것도 아니란다. 그말을 듣는 순간 내 의식 속으로 섬광이 지나는 것 같았다. 무소유 정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엄숙한 태도가 내게는 어떤 가르침이었다. 그 날 진지하게 말하던 그의 표정이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에 선하다. 그는 또 수염이 많았다. 그래서 별명이 '산적'이다. 보름에 한번씩 삭발을 하곤 했는데 삭발날이 가까워오면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가득 찬다. 양쪽 볼에까지 수염이 자라면 그는 도적떼를 몰고 온 산적과 흡사하였다. 그런 그가 삭발날 깨끗이 수염을 깎고 나면 잘생긴 '기생오라비'가 된다. 그를 볼 때마다 수행자는 삭발을 깔끔히 하여야 인물이 제 몫을 하는 것을 느끼겠다. 삭발한 날 밤이면 우리는 뒷산 소나무 숲으로 간다. 소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보름달을 보고 그는 노래 한 곡을 부른다. 달빛을 타고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소나타가 되어 밤하늘에 퍼진다. 그는 이처럼 때로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곁에 있었다.

혜우스님은 집안의 3대 독자라고 들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 스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법문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노모의 불심도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키우던 아들의 출가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아들이 출가하여 공부하는 일이 집안의 대를 잇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단다. 그래서 그는 출가 후 강원 공부 대신 선원에서 그렇게 마음의 실체를 찾아 피나는 정진을 하였는지도 모른다.

안거를 마치고 그가 내 사는 곳으로 찾아온 적



이 있다. 하룻밤 같이 자면서 목이 말랐는지 새벽녘에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닌가. 마침 그 날은 냉장고에 날짜 지난 우유 밖에 없었는데 어쩌나 싶었다. 잠시 후 그는 배를 부여잡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새벽녘부터 동틀 때까지 해우소를 몇 번이나 드나들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 나는 그의 부음을 들었다. 그 때의 그 우유가 자꾸 목에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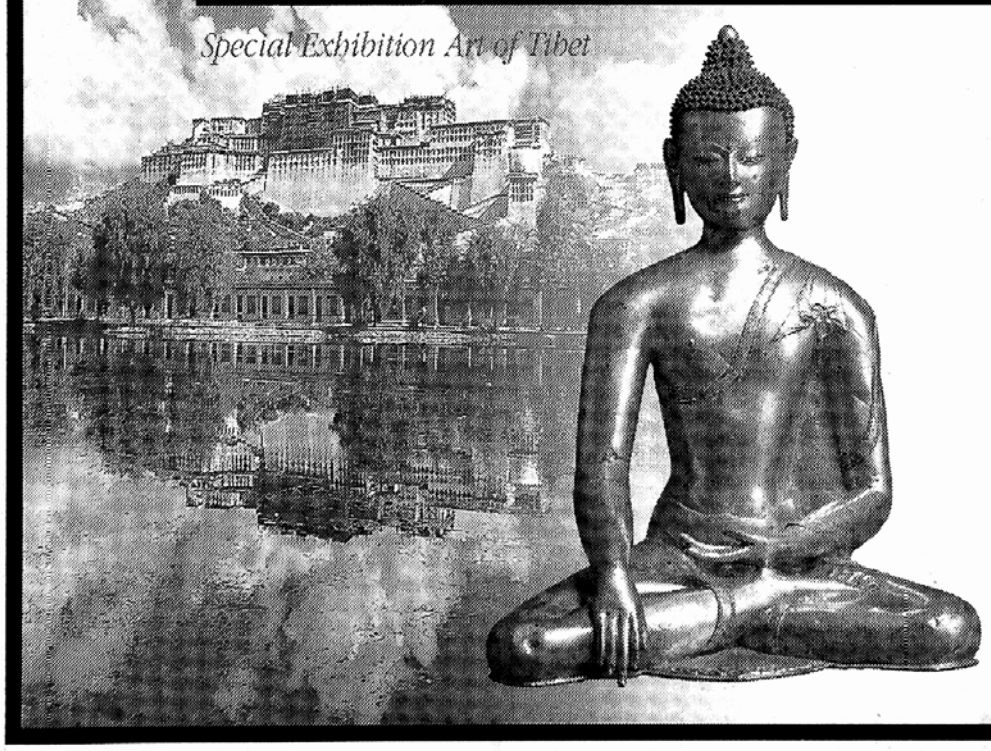
춤추는 이는 떠나버렸으나 춤만이 남아 있고 노래하는 이는 떠나버렸으나 노래만이 남아 있다는 말처럼 혜우스님은 불의의 사고로 훌쩍 우리 곁을 떠나버렸으나 미소만은 지금까지 내 가슴에 남아 있다. 한 수행자가 남긴 삶의 향기는 남은 자에게는 두고두고 나침반이 된다. 그 어떤 어록보다 간절함이 묻어 있는 가르침으로 다시 살아난다.

혜우스님을 떠올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알고 지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알고 지내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겠다.

이번 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현진스님은 1983년 이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해인사 강원과 송광사 율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등 선원에서 정진하였다. 수필집으로 〈삭발하는 날〉과 〈두번째 출가〉를 펴냈다. 현재 월간 '해인'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특별전 개최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티베트 불교유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순박한 삶과 종교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티베트미술의 아름다움을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막일시 : 2001년 6월 25일(음 5. 5) 월요일 오전 11시
전시기간 : 2001년 6월 25일~9월 17일(3개월간)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전화 : 055) 382-1001, 384-0010

특별행사로 티베트스님들의 만다라 제작시연이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시기간 동안 전화로 예약하는 사찰단체에 한하여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TONGDOSA MUSEUM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http://www.tongdomuseum.or.kr
■ 6월 25일(음 5. 5) 오전 9시 30분에는 박물관 삼층석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법회가 있습니다.